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2장은 이 두 부분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걸어갔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분배하기 전에 자신들이 차지한 땅과 정복한 왕의 이름들을 꼭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 속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마찬가지로 받은 축복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고백해야 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나의 축복은 앞선 사람들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먼저 1-6절에서 모세의 시대에 정복되었던 요단강 동편 지역과 두 왕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정복한 왕들의 이름만을 기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모세가 정복한 요단강 동편의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모세가 행한 일을 함께 기록함으로써 오늘의 승리, 축복이 자기들만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앞서 믿음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을 통해 주어졌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 기억했습니다.

앞선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잊어버리면, 감사를 잊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사명의식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나도 다음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 나의 축복은 함께 한 사람들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땅을 차지하고, 왕들을 쳐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의 축복이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주어졌습니다. 이 축복은 한 사람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한 것입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리더들이 있었지만, 그들만으로 이런 승리와 축복을 얻을 수는 없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루어낸 승리, 축복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아이성의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서 승리한 것도,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북부 연합군을 무너뜨린 현장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고 헌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축복이 함께해 준 사람들을 통해 주어졌음을 깨달을 때,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쓰임 받기를 구하게 됩니다.

셋째, 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복한 요단 동서편의 땅들과 33명의 왕들을 기록하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로 수많은 왕들, 하나하나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바산 왕 옥은 60여개의 성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무리 살펴봐도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승리를 기록해 나가며,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섬세한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구나 고백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조, 시편 136편 17~26절)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무언가 축복을 받으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 신앙의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결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보다 먼저, 그리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의 삶이 위대한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을까요? 나와 함께 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23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4/17(월)	4/18(화)	4/19(수)	4/20(목)	4/21(금)	4/22(토)	4/23(주일)
삼하18-19	삼하20-21	삼하22-23	삼하24,왕상1	왕상2	왕상3-6	왕상7-8

QT

이번 주 QT 말씀

4/17(월)	4/18(화)	4/19(수)	4/20(목)	4/21(금)	4/22(토)	4/23(주일)
삼하4:1-12	삼하5:1-12	삼하5:13-25	삼하6:1-15	삼하6:16-23	삼하7:1-17	삼하7:18-29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내가 받은 축복을 돌아보며, 앞선 사람들과 함께해 준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3. 내가 받은 축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해 보세요.